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4일(금) 저녁 8시에 모입니다. 나라 안과 밖의 상황이 전쟁과 경제불안,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 어린이학교가 20일(월) - 21일(화) 여행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공동체운영위원회 30차 정기회의가 오후 2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제 39 - 25 호  
2022년 6월 1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오르단 중국

사 | 랑 | 방 | 은 |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불평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요즘 사랑방에서는 성서일기 진도가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시내 산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젊은 사람들을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을 파악하여 모두 등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파별로 행군의 순서와 진의 위치를 정해주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상으로 편제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 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도록 조직합니다.

무려 육십만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는 11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는데, 시내 산을 떠나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서, 이집트에 있을 때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불평으로 드러났고, 마침내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시작되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는 이집트를 나올 당시에 함께 섞여서 들어온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 무리를 말합니다.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여 같이 울며 원망 섞인 불평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나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음식을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은혜의 만남을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 결국은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함께 가야 할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주장을 앞세워서 공격해야 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음식이 지금 광야에서의 음식보다 더 나았다는 식으로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들어서 마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인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금방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쾌락과 복지, 안락함을 목표로 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잡족들의 불평에 동화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불평을 조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 한주간의 말씀

“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 민수기 6장 24-26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민수기 9장

제목 :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6 393 545 220

### 관찰]

1~5 두번째 유월절 준비

6~14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한 대안

15~23 구름을 따라감

### 해석]

1. 유월절은 모두가 함께 참여해 생명을 나누는 날입니다.
2. 모세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단계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 적용]

1. 서로 돌아보아 함께 예배 드리자.
2. 하나님께 겸손히 묻자.
3. 하나님과 동행하자.

## 성서일기

## 아이를 훈련 시켜라

“아이를 훈련시켜라”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더 쉬운 동시에 더 어렵기도 했습니다. 쉬운 이유는 자격증이 있는 교육가나 지혜로운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역동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배움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하면 됩니다. 나는 그저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예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을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머라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기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엡4:13-15)

먼저 탄생하고 그다음에 자랍니다. 이 두 가지 은유는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탄생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성장은 탄생에서 비롯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성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장은 이 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성장, 지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은 모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임무는 단지 육체와 감정과 정신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형성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성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에서 이 사역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 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 머물렀다” (눅1:80)

그리고 한두 페이지 뒤에 예수님의 탄생 후와 관련해서도 이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는 나리를 먹고 지혜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도 갈수록 더 많이 받았다” (눅2:52) 요한은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자랐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라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물총새에 불이 불듯] 중에서.

##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김화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육대철

예 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베드로전서 2 : 9

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베드로전서 1 : 23

53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민수기 6 : 22-27

219

설교자  
공동체

“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시다 ”      권재만 목사

32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516(1)

##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을 누리며

세상에 전하길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시다

제사장의 축복선언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뒤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행준비가 마쳐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에 평화를 점점 확장시켜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은 혈통과 전통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모든 피조물에게 까지 복을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평화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며 이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용신 장로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지난 주 김중석 작가에 '나오니까 좋다'라는 책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릴라와 고슴도치가 도심에서 자연으로 떠나 캠핑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전시회장에서 꾸러기들이 책도 읽고 캠핑 용품들로 놀면서 좋아해서 날씨 좋은 화요일에 데크에 멋진 텐트를 같이 쳤습니다. 폴대를 길게 만들고, 텐트에 꽂아 텐트를 세워서 선생님들과 함께 텐트를 거니 금방 텐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이 3번째로 텐트를 치는 날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넘치고, 더 빨리 만들었습니다. 밖에 치는 건 처음이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새소리도 어찌라 아름다운지 따라 부르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6월에 익는 달콤한 보리수를 뛰어가서 먹고, 금방 돌아와 텐트에서 꽃과 풀로 요리를 합니다. 또 달려가서 방방이를 신나게 뛰고 옆에 그네에서 놉니다. 그러다 다시 텐트에 와서 누워서 쉭니다. 캠핑놀이를 하면서 더 신이 난 꾸러기들은 신나게 잘 놉니다.

6월은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에 그루터기로 산책을 가서 맛있는 간식들을 먹었습니다. 바로 오디와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오디는 익은게 많지 않아서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오디의 달콤함이 아이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꾸러기가 간식을 먹고 그네를 타는데 그걸 본 차태옥사모님이 꾸러기들 먹으라고 수박을 주셨습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으며 재밌는 수박 씨뱉기 놀이도 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흐리다가 잠깐씩 비가 오다가 바람이 불어 한기가 들기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서도 보리수는 바알갛게 익어서 어린이들의 새참 꺼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산을 받치고서도 고개를 들고 손을 뻗어서 톡톡 입 속으로 넣는 친구들이 귀여웠습니다. 과육을 삼키고 남은 씨앗은 멀리 뱉기 놀이가 되어 너도나도 참여 하는 한바탕 놀이가 됩니다.

다음은 주제탐험 소식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문해력을 다룬 주제탐험이 끝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다짐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인내력 있게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어 어느 분야를 다루더라도 이해하고 요구하는 바를 알아내는 똑순이들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중요한 소식 한 가지 더는 월·화에 캐리비안, 에버랜드 여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조를 나누었는데 친구들의 마음은 별써 놀이기구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때보다 안내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도 신남이 충만해 보였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심이 다치지 않고 즐겁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또 배려 받는 여행이 되기를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한주간의 어린이 소식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13(월)~ 17(금) 기간에 학년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여행인 만큼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학년은 양평 두물머리로, 2학년은 춘천과 서울로, 3학년과 5학년은 포천에서 용인까지 자전거 여행을, 4학년은 수원으로, 6학년은 부산으로 각각 떠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년별 여행은 특별히 모든 학년이 3일차, 4일차에 모두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캐리비안베이에서는 학년별로 파도풀에서 서로 물도 먹이고 온천에서 몸도 녹이다가 또 다른 멋쟁이들을 만나 함께 놀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비가 많이 왔지만 다행히 캐리비안베이의 많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비 오는 날 물놀이를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는 놀이 기구를 탈 수 있는 레벨별로 나눈 모둠으로 다니며 폐장시간까지 알차게 놀았습니다.

각 학년이 따로, 또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준비과정부터 마지막 피드백까지 함께 사는 삶.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며 또 한 번 쑥 성장한 멋쟁이들입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박예나 >

## 공동체 삶의 축복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의 혜택은 자녀들이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공동체 아이들은 대부분 사랑방공동체학교에 다닙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끝없는 경쟁을 지향하기에 학교생활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방공동체학교는 신앙과 인격을 우선시하기에 학과수업은 적지만 노작, 운동, 악기연주, 이웃 봉사 등등으로 개인의 창의력도 심어주고 월평균 1회 정도 여행 등으로 자라나는 시기에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만족해하므로 “학교를 끊는다”라는 협박이 부모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자녀교육은 삶을 함께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자녀에게 잘해 주고 싶고, 남보다 덜 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내 애는 남의 애다. 남의 애는 내 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남의 아이 같이 대하므로 집착하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하고, 남의 아이는 공동체 아이로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내 아이같이 키운다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자녀교육은 자녀교육을 어렵게 느끼게 하지 않게 해주기에 공동체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느 아버지의 고백에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방공동체에서 키운 것은 내 인생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갈 길을 알아서 잘 해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잘 커 주었거든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사무엘기상 7장 12~14절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기 도 :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유럽의 교회들을 위해>

세계의 교회들, 특히 유럽의 교회들은 여러 사회적인 현상과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큰 위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 더 이상 기독교국가라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원인으로는 인구 자연감소와 국가 복지정책에 따른 탈 종교화, 젊은 층의 신의 존재 부인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라 더 혼란스러운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교회의 교회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 2) 교회 간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

- 제주 강정에서 해군기지를 상대로 반전 평화운동가들을 길러내는 교육과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뜻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여행 중에 있는 멋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 몸이 아프거나 회복 중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 생활공동체 소식 >

비가 넉넉히 내리면서 공동체 밭 작물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간 물을 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였는데 말입니다. 이제 완두콩이랑 감자랑 추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며 기뻐할 아이들의 탄성과 웃음소리가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큰 비를 대비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배수로도 점검합니다.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장마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